행복한 책읽기

진 바우어의 '생추어리 농장' 〈책세상 刊〉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섭취함으로써 살아간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섭렵하는 생명체의 범위가 가장 넓을 것이다. 작은 나물에서부터 거대한 포유류 동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먹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른 육식동물처럼 인간도 뭔가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괴테도 "생명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며, 죽음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기교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이 말을 기껍게 받아들이는 죽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생명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 속 동물의 사냥에서 더 나아가 고통스럽게

들이 한두 마리씩 풀을 뜯던 예전의 풍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길러진 가축에 비해 사육장의 가축들은 지구의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면서 길러진다.

2005년 당시 미국 국민 1인당 소비하는 고기의 양이 대략 143근에 이르렀고 이 시장에 맞추기 위해 대부분 농장들은 대량생산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이 때문에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어 가고 옥수수나 밀을 가축에게 빼앗긴 8억 5000만에 달하는 인구가 만성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쓰러진

인간과 동물, 공존을 꿈꾼다

사육된 동물을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무 것도 되돌려주지 않으면서 착취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인간은 거대한 공장의 생산 라인 같은 시스템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하여 죽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가볍게 대하게 된 것은 아닐까. 기계를 생산하듯 모든 공정을 나누어서 사육과 도축을 하며 매일 같이 다른 동물의 육질을 대함으로서 우리 인간의 감성은 그렇게 무뎌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은 꼭 동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생추어리 농장'의 저자인 진 바우어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보다 더 인간적인 식탁을 제시한다. 그것은 되도록 유기농 식품과 채소로 이루어진 식탁이다. 혹

나이가 든 세대라면 들판 여기저기서 소

동물의 사체까지 먹이고 움직일 공간의 여유 없이 가두어놓고 기르는 동물들은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 받는다. 미국에서만 한 해에 1만1340톤의 항생제가 소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을 구입할 때 생산방식이나 생산하는 곳을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먹히는 자'나 '먹는 자' 모두 질병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날이 머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추어리 농장'은 이런 공장 시스템의 농장에서 구해낸 다우너(다쳤거나 병에 걸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가축)를 보살피는 곳이다. '생추어리 농장'을 운영하는 저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삶의 기쁨을 나누는 세상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고기를 파는 식당이 대부분인 거리를 지날 때면 나는 이 같은 진 바우어의 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지구와 인류가 공존하는 식탁을 소망한다.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광주시향 루드비히 지휘자 연임에 단원들 반발

불공정한 근무평정 판결·연주 질 하락 등 이유 반대

문예회관 "공연·관객 증가 등 성과 뚜렷… 철회 불가"

루드비히 상임지휘자 연임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현 상임지휘자의 연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향 단원들은 상임지휘자의 근무 평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후 공식적으로 '지휘자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자문위원회(5명) 결과 연임이 결정된 루드비히는 지난 10일 연임을 통보 받았으며 아직 광주시와 공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루드비히의 계약조건은 연봉 10만 달러, 항공료 1년 2000만원 이내, 사택 제공 등이며 연임 임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년이다.

▲단원들 승소… 광주시 항소 예정

광주지법 민사 25단독 김진환 판사는 11일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단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말 정기평정에서 단원 16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고 단원들은 심사위원이 사실상 '합의제'로 판정을 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단원들은 판결 후 현 지휘자의 연임에 대한 단원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11일 '연임 반대'를 주장하며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했다.

성명서에서 단원들은 ▲루드비히 취임 후 교향악단 연주의 질적 하락 ▲동생(첼리스트), 여자친구(성악가)를 협연자로 세우는 등 도덕적 자질 문제 ▲정기평정에 대한 재판 결과 ▲단원 설문 결과(연임 반대 76%, 잘 모르겠다 18%, 찬성 5%) 등을 제시하며 연임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 측은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했고, 루드비히 취임 후 공연 횟수와 평균 관객이 늘어나고 입장료 수입도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연임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단원들의 제기한 연주회 질적 수준 문제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 가족 협연의 경우도 외국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다 연주자의 실력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창재 관장은 "지휘자 연임 반대는 정기 평정 때문에 촉발된 일로 다른 부분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좋은 교향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실력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출석 요구를 받은 루드비히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판결날 연임 통보… 서명운동 전개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갈등은 1년 가까이 계속된 터라 이번 사태는 다소 예견된 일이었다. 지휘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항의 리본을 달고 연습에 임하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져왔지만 문예회관과 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특히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연임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예정된 날 오전에 연임을 전격적으로 통보한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들어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광주시향의 공연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지휘자 연임 문제에 접근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단원들이 내세운 연주회 질적 하락의 책임을 모두 지휘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며 단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음악인 A씨는 "공연은 단순히 관객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단원들 개인 역량의 문제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 객원지휘자와 협연자 때문에 공연장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 지휘자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휘자 문제는 의회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루드비히의 자질과 인사문제가 있는데도 지휘자 연임을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소통의 부재"라며 "광주시향이 내부적인 문제로 표류하는 데 대한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단원들을 만난 정 부시장은 "계약 체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민중미술의 흐름을 들여다본다

'한국 리얼리즘전' 17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강연균 작 '현대사'

함몰된 유골이 눈에 확 들어온다. 작품 밑에는 '광복군 대위 장준하'라고 적혀 있다. 바로 옆에는 일본 군복을 입은 한 젊은 장교가 앉아있다. 밑에는 '일본군 소위 다카키 마사오'라고 적었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장교 시절 창씨 개명한 이름.

고 장준하 선생과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굴곡진 현대사를 표현한 서양화가 강연균씨의 '현대사'라는 작품이다.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전시되는 '한국 리얼리즘 미술 30인 오월의 미학, 뜨거운 가슴이 여는 새벽'전은 한국 민중미술의 대표주자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이 책 출간과 함께 마련한 전시로,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된 광주, 한국 민중미술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거리에서, 광장에서, 뭇시민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던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 공간에 가득하다. 작고한 오윤씨를 비롯, 임옥상, 민정기, 박불똥, 이종구, 이철수 등 참여 미술가들의 자취를 엿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의 책을 들여다보면서 전시관을 둘러보는 게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하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우환전 16일까지 연장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9일 끝내기로 했던 이우환 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외국 미술시장에서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경매 최고가를 기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이우환의 1977년 작 '점으로부터'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 10회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21억3000만원(수수료 제외)에 낙찰, 한국 작가 해외 경매 최고가 기록을 깼다. 이번에 팔린 작품은 세 점 한 세트(전체 크기 가로 291㎝×세로 162.1㎝)로, 시립미술관이 소장중인 1974년 작 '점으로부터'(가로 162㎝×세로 130㎝)와 비슷하다.

한편, 시립미술관의 '이우환' 전에는 1974년~2000년까지 작품 35점이 전시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